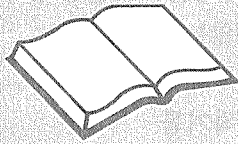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1◎



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일인가

도서관문화 2004년 4월호를 시작으로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코너를 집필해오던 한미화 출판칼럼니스트의 글은 이번호로 끝마칩니다.

5월호부터는 이 코너를 최성일(출판평론가) 씨와 김준목(인문학 교양잡지 <안띠푸스> 주간) 씨가 꾸려가게 됩니다. 두 분의 글은 2006년 12월까지 게재되는데, 김준목씨의 글은 분기별(3,6,9,12월)로 1회씩 총 8회가 실리게 됩니다. ■ 편집자 주



한미화*

연재를 처음 시작할 때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도서관 입장에서 궁금한 출판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는 부탁을 하셨던 게 기억난다. 그런데 이런 주문을 종종 받는 입장에서는 출판을 뭐라 이야기해야 하나 싶다. 포드가 분업화를 산업에 도입한 것이 언제인지 까마득하지만, 출판은 기획 단계부터 책이 나오면 발송하는 과정까지 전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고단한 수공업일 뿐이다.

물론 출판에 대해 알고 싶다는 건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책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출판이 궁금해지는 단계로 전이한다.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 고마워해야 마땅한 일이다.

평계를 대자면 마지막 연재 원고를 앞에 두고 지난 1년 동안 '도서관이 꼭 알아야 할 출판이야기'를 끝내 하지 못했다는 당혹스러움이 든다는 거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맡겨지면 Q&A형식으로 연재를 진행할까하는 허망한 생각을 뒤로 하고 최근 출간된 『편집이란 어

떤 일인가』로 숙제를 대신한다.

책의 저자인 와시오 켄야는 1969년 일본 최대 출판사인 고단샤에 입사해 고단샤 현대 신서, 선서 메치에, 『일본의 역사』 등 굵직한 기획물을 세상에 내놓은 편집자로 그가 바라본 편집의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있다. 2003년 퇴사하기까지 고단샤라는 한 출판사에서 35년간 편집자로 일했으니 우리 실정에서 보자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국보급 편집자다.

거듭 궁색한 변명을 하자면 이제 출판계에 입문한지 10년이 가까스로 넘은 필자보다는 35년간이나 출판현장에서 일한 와시오 켄야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출판의 실체에 접근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와시오 켄야와의 대담은 가상임을 밝힙니다).

물론 독자 중에는 출판이야기를 하자면서 일본 출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막상 살펴보면 어찌보면 이렇까 싶을 만큼 일본과 우리 출판은 시스템, 현황 그리고 문제의식까지 닮은꼴이다.

* 출판칼럼니스트, bangku@dreamwiz.com

한미화(이하 한) 안녕하세요? 35년간이나 숨가쁘게 일하다가 퇴직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새 그간의 경험을 묶어 책을 출간하셨군요. 일본과 한국의 출판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더군요. 선생의 책을 보면 일본에서는 편집자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와시오 켄야(이하 와시오) 취업철만 되면 대형 출판사의 접수창구는 장사진을 이뤄 10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출판사에 들어올 때만 해도 동네 유리집 아저씨가 와시오 아들도 몰장수가 됐어 라며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제가 출판사에 들어왔을 때는 학생운동이 격렬하던 시기라 편집자 중에는 학생운동을 하던 괴팍한 사람이 많았지요. 학생운동에 정신이 팔려 사상과 품행이 나쁜 사람들이 갈 곳이라고는 언론과 출판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요. 당시의 편집자는 그래서 굵여나 대우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에 불탔지요.

그런데 지금은 입사지원자에게 출판사 말고 또 어디를 지원했냐고 물어보면 내로라하는 은행이며 대기업 이름을 줄줄이 대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 출판사에 오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은 영어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인상도 나쁘지 않지만 상사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세대라고나 할까요. 실력과 편집장 아래에서 시키는 일이나 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힘든 상황을 견디며 기획을 하는 힘은 부족합니다.

한 한국 역시 언론운동과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들이 대거 편집자로 유입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출판으로 오지 않는다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세대라고 해도 일본 대형 출판사에 인력이 몰려든다는 점은 부럽습니다.

선생의 지적은 열정이 없으면 편집자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편집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와시오 우선 편집자란 호기심이 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부터 『블랙잭을 부탁 해』같은 인기만화와 『바보의 벽』같은 베스트셀러까지 두루 읽어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을 줄줄 꿰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시야를 개방하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편집자는 어디까지나 초보자를 대표하는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저 역시 『현대사상의 모험가들』을 기획할 때는 공부모임을 만들어 기획을 해나갔습니다.

다음으로 편집자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편집자가 되고서도 남이 옆에서 들으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반응을 의식하는 것도 요즘 세대의 특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편집자가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자란 온통 머리 숙여 부탁할 일이 많은 직업 이니까요.

또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잃지 않는 자세도 중요하지요. 여담이지만 술도 마실 줄 아는 편이 낫고, 과묵한 것보다는 말이 많은 편이 낫구요.

한 굵직굵직한 기획을 주로 하신 선생께서 인기만화나 대중서에도 관심을 뒀야 한다고 주장하시다니 흥미롭군요. 실제로 선생은 고단샤에서 신서 같은 교양서를 주로 하셨잖아요.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와시오 미국과 유럽만 해도 대학출판사와 대중서 출판사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요. 고단샤처럼 누드 사진 넣은 주간지를 펴내는 출판사에서 『현대사상의 모험가들』 같은 철학사상 시리즈를 펴내는 일은 없지요. 사정이 이러니 이와나미 신서나 추코신서에 비해 고단샤의 현대신서는 인지도가 낮고 너무 안 팔려 폐간하자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주간지를 내는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고 싶지 않다는 게 저자들의 입장이기도 했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히로마츠 와타루 선생의 글은 난해한 걸로 유명했는데 청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봤자 당시 고단샤로서는 거절당할 게 뻔하니 마르크스 관련서는 읽어본 적도 없는 여자 직원을 택으로 보냈어요. 가거든 기념으로 화장실이나 한 번 들어갔다 오라고 농담을 했지요. 그런데 흔쾌히 승낙을 받아온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 손잡이에 커버가 씌워져있다는 보고까지 받았지요.

나름대로 필자군을 새롭게 찾고자 교토대학으로 지방대학으로 남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데까지 축수를 뺀치고 현대 신서의 장정도 바꿨지요. 또한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책을 만들었구요. 신서가 그때까지는 지식인을 위한 교양서였지만 제가 만든 현대신서는 대중의 신서라는 이미지를 보여줬다고나 할까요. 고단샤가 아카데미즘과 단절되어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한 측면도 있어요.

한 선생이 출판을 시작하던 1970년경에는 일본 출판의 매출액이 슬롯머신 업계와 어깨를 겨룰 정도였다죠. 그런데 지금은 슬롯머신 업계의 매출액은 17조 엔인데, 잡지와 서적을 포함한 일본 출판 전체 매출액이 2조 엔으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야기

를 돌려 독서하는 사람이 소수민족이 된 지금, 출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쭙고 싶군요.

와시오 신서를 읽는 독자의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독서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이 큰 문제지요.

독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후 일본인은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회주의가 붕괴되며 가치의 평준화가 이뤄졌다고나 할까. 문화의 고급과 저급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철학서와 연예인의 에세이가 지닌 위상이 바뀐어요. 무엇이든 책이 되는 세상에서 오히려 책에 대한 독자의 욕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학계도 변했어요. 학문을 하는 목적이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관심이 있고 재미있는 걸 한다는 식으로 학문의 자폐화, 오타쿠화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오타쿠화를 전문화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오타쿠에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전체에서 어디쯤 위치하며 어떤 의미가 있고 인접 영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책의 경쟁상대가 많아졌지요. 특히 인터넷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지요. 하지만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이란 과거의 정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출판은 앞으로의 지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편집자가 인터넷에 의존하고 저자가 오타쿠화한 상태에서 책은 당연히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특히 오늘날 있으나마나한 책이 홍수를 이루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터넷 시대일수록 전방위적 지식을 책이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필자들이나 편집자들은 오타쿠화한다는 점은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와시오 제가 거듭 주장하는 것이 책에는 예초부터 범용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나 마찬가지로, 주제나 대상 독자를 좁히고 한정함으로써 책을 읽는 이의 욕망을 부추켜야 합니다.

한 선생의 책에는 인간교제론이 별도의 챕터로 담겨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서 편집자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생이 글쓰기는 '전인격을 건 작업'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지식인이 대부분이지만 이들과 만나 관계를 맺다보면 그들을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 들거든요.

와시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신입사원 시절 편집자를 하겠다는 자가 고개가 뻗뻗하다고 선배에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편집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획이란 저자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제가 겪은 바로는 누구나 글을 쓸 때 종종 사회적 지위라는 옷을 벗고 자신의 인간성을 고스란히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편집자가 저자와 개인적 고민이나 비밀까지 공유할 수 있는 건 이런 글쓰기의 전인격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마 한미화씨가 놀란 경우란 대가라고 꼭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도 포함된 듯한데요. 물론 저 역시 신입일 때 대가의

원고를 받았는데 조리가 없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가라도 문장력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안 거지요. 심지어 『우리 구두』를 쓴 유명한 작가 야스오카 쇼타는 원고를 쓰다 흥이 오르면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스모선수처럼 허리를 들고 글을 쓰는 겁니다. 탈고가 가깝다는 증거죠. 전화로 한 시간 이상을 야구 이야기로 떠드는 사람이 야스오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교양 있는 선배가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실 출판이란 학술적 체계가 존재하는 분야가 아니라 선생 같은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많은 생각거리를 남겨주시는구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시오 아시겠지만 편집이란 일은 개별적입니다. 어떤 책에는 통하던 것이 다른 기획에는 먹혀들지 않지요. 편집에 일반론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 이야기 역시 그런 점에 유념하여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불가에서 말하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달마를 만나면 달마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